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K-라이스페스타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 2000여 명 참석

농협(회장 강호동)은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3홀)에서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기원했다.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산 쌀로 만든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을 발굴·홍보하고 판

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국민 축제로, 크게 품평회와 페스티벌 두 가지 메인행사로 진행된다.

농협은 지난 5월 국산 쌀을 이용해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평회 참여 접수를 받고, 470여 개 업체의 출품작 약 780여 점을 4개월 간 심사했다.

품평회 결과 7개 부문에 걸쳐

총 28개 제품을 선정했으며, 부문별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농협중앙회장상 1점 ▲농협 경제지주 대표이사상 2점을 수여했다. 수상업체에게는 총 상금 2

억 8천만 원을 시상했다.

또한, 수상작 판로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6개소 ▲농협몰 ▲술마켓·술담화에서 특별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 우수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증류주, 막걸리, 약정주 등 국산 쌀로 만든 술 200여 종 ▲쌀로 만든 참신한 가공식품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와인 등을 맛보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막걸리 빛기 체험 ▲황금쌀을 찾아라 ▲우리농산물 푸드아트 대회뿐만 아니라 ▲토크콘서트 ▲술 MBTI 찾기 ▲주안상 대회 ▲

도슨트 투어 등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K-라이스페스타를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알리고 우리술과 쌀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면서 “쌀을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인 K-라이스페스타를 정례화하여 우리 쌀 가치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10월부터 대학생 서포터즈 ‘K-라이스페스타’를 모집·운영하여 MZ세대의 시각으로 국산 쌀 기반 제품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김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막식(농협 제공)

농진청,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장관상 수상

현장 수요 반영한 우수 품종 경쟁력 인정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콩·복숭아 품종이 ‘2025년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AI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벼 ‘알찬미’, 콩 ‘청자5호’, 복숭아 ‘옐로드림’ 등 3개 품종이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국내 육성 품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육종가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종자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국립종자원이 주관하며, 매년 출품자 중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

상 2점, 장관상 5점을 선정한다. ‘알찬미’는 이천시와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SPP)’ 방식으로 만든 벼 품종으로, 병해에 강하고 키가 작아 도복에 잘 견딘다.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



▲(벼)알찬미 출수

화 물질이 풍부한 데다 수화량이 많고 기계수확이 가능해 노동력 절감 효과도 크다. 논 재배 확대로 생산 기반이 안정되며 두유·된장 등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옐로드림’은 망고처럼 달콤한 맛을 지닌 천도복숭아 품종으로, 신맛이 적고 껌질째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준 천도가 7월 중순 접수하되는데 비해 이 품종은 7월 초부터 수확이 가능해 시장 경쟁력이 높다. 2018년 보급 이후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며 천도 품종의 세대교체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만족할 품종 개발을 지속해 농업 경쟁력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식진흥원,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획득

독서 기반 조직문화와 개인 역량 개발 성과 인정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한식진흥원은 3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획득하며, 독서 친화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직장 내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 친화 경영에 성과를 보인 기업·기관을 발굴하는 제도다. 심사에서는 경영진의 리더십, 독서경영 인프라 구

축, 추진 활동 실적, 독서 관련 사회공헌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 한다.

한식진흥원은 임직원의 독서 활동 지원을 통한 소통·협력 기반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 가족 대상 가족친화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직원 독서 동호회 및 독서 토론회 장 마련 ▲사내도서관 활용 확대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식콘서트’ 마련 등 기관 특성에 맞춘 독서 친화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독서동호회 주관한 시

각 동화책 제작 활동을 통해 다문화 및 정보 접근 쥐어 애동에게 도서 전달 및 기부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과 사회적 가치 실천 측면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직원들의 꾸준한 독서 활동과 경영진의 관심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독서를 통해 개인의 역량과 조직문화를 강화하는 독서친화적인 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농어촌공사, 2025년 ESG 경영위원회 개최

화이트 클로버 생태 제어 사례 주목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26일 ‘2025년 ESG 경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 해 추진한 ESG 경영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위원회’는 공사의 ESG 경영 주요 현안을 자문하는 기구로, 김인중 사장과 서울과학기술대 이종우 교수가 공동위원장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내·외부 전문가와 고객대표 등 16명이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ESG 경영 방향을 제언했다.

회의는 성과 보고로 시작됐다. 공사는 ▲농어촌 지역 물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협력한 ‘물 환원 프로젝트’ 확대 ▲사장(CEO) 주도로 마련한 새로운 조직문화 강령 ‘KRC Clean Wave 1·2·3’ 선포 등 올해 추진한 주요 ESG 활동을 공유했다.

특히 공사 사내벤처 ‘방초소년단’이 추진 중인 ‘화이트 클로버’를 활용한 생태적 잡초 제어’ 사례가 큰 관심을 받았다. 화이트 클로버를 심어 기계 예조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과 안전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밀원 조성으로 끝 보호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표창 수상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농림축산식품부문 1위 선정 등 공사의 ESG 경영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도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구체적 위험 관리 체계 마련”과 “협력사 공급망 관리를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026년 ESG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김대경 기자
press@honguptimes.com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